

韓國女性洋裝의 嚆矢에 關한 研究

부산여자대학 의류학과
조교수 남 윤 숙

目 次

- I. 序 論
- II. 女性洋裝의 始作
- III. 結 論
- 參考文獻

I. 緒 論

19世紀末 西洋服飾의 등장은 韓國現代服飾史上 큰 변혁을 초래하였다. 당시 男女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차이로 인하여 男性에 비해 女性洋裝의 일반화는 지연되었지만 여성의 양복 착용은 상당히 일찍 시작되었다.

한국 여성양장의 효시에 관해서는 1980年代末까지 “1899년의 윤고려”로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1899년의 윤고려를 그 효시로 하는 것에는 본인의 줄고²⁾에서 지적하였듯이 몇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윤고려 이전에 이미 양복을 착용한 여성이 기록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 또한 기준에 따라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여성양장의 효시를 1899년의 윤고려로 통용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몇가지 논의와 함께 새로운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女性洋裝의 始作

선행 연구에서는

“ 우리 나라에서의 洋裝의 시작은 1899年 때 부터로써 尹致晫가 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자기만 洋服을 입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부인 尹高羅(金潤晶氏 따님)까지도 洋裝을 하게 한 것이 嚆矢가 된다.”³⁾

고 하여 여성양장의 효시를 1899년 尹致晫의 부인 尹高羅로 발표하고 있다. 위의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1899년 당시 윤치오와 윤고려⁴⁾의 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 당시 개화된 인사로서 유명한 尹致晫와 인척간인 尹致晫 역시 일찍이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여 생활화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부인이 근대화

1) ① 柳喜卿, “韓國女性服飾의 研究,” 韓國女性史 II, 梨大出版部, 1984. p. 247.

② 俞水敬, “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關한 研究,” 梨大大學院, 1989. 4, p. 128.

2) 南潤淑,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世宗大大學院, 1989. 12, pp. 70~75.

3)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梨大出版部, 1977, p. 640.

4) 金潤晶의 딸로서 김고려이나 결혼 이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서양식을 따라 윤고려로 호칭. 당시 신문에는 尹高羅(황성신문 1908. 10. 8), 윤고라(尹高麗; 매일신보 1913. 12. 3) 등으로 이중 표기되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윤고려(尹高麗)로 호칭을 통일하였다.

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윤치오는 부인과의 死別로 인해 결혼을 세 번 하였는데 윤고려는 이중 두번째 부인이었으며 1899년 당시 윤치오의 부인은 윤고려가 아닌 李淑卿⁵⁾이었다.

윤치오의 첫번째 부인이었던 이숙경은 甲申政變(1884) 직후 渡日한 남편 윤치오를 따라가 20여년을 생활했던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 및 남편과 함께 귀국한 것은 1906년이었다.⁶⁾ 윤남경은 1890년에 이숙경이 양복을 착용하였다고 여성지에 게재한 글 속에서 밝히고 있다.⁷⁾ 1890년 당시에 있어서



〈사진 1〉 李淑卿, 新生活 100년, p. 35.

한국 여성이 외국에서 생활하며 이국 문물에 접하는 것은 거의 全無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고증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다면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는 이숙경으로서 시기 또한 훨씬 소급된 1890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이숙경이 양장한 곳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역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이것 또한 고증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사진 1).

한편 1907년 1월 이숙경과 死別⁸⁾한 윤치오는 1908년 3월 윤고려와 재혼하였다.⁹⁾

매일신보 1913년 12월 3일자에는

“칠팔년의 경성 교제계의 뜻으로, 여자 교육계의 열심가로 저식이 겸비한 윤고려(尹高羅) 녀스는 금술이 비호곳업는 그 남편 중추원찬의 윤치오(尹致昨)씨와…… 부친되는 전라북도 참여관 김윤정(金潤晶)씨의 부¹⁰⁾를 저바리고 작 이일 오전 구시 삼십분에 이 세상을 영결하였더라. 금년 이십 삼세이니 일즉이 그 부친을 따라 미국 서울 와싱턴녀학교와 동경에 녀즈학원을 우등으로 졸업 하였…….”

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본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윤고려가 사망한 1913년 당시의 연령이 23세이므로 그녀의 출생년도는 1891년이 된다. 따라서 윤고려가 1908년 윤치오와 결혼할 당시는 17세로서 1899년 당시는 8세의 어린 소녀에 불과하였다.

한편 1905년 6월 당시 주미 한국 서리공사였던 윤고려의 부친 金潤晶은 그해 12월 30일 가족과 함께 워싱턴을 출발하여 귀국하였다.¹¹⁾ 당시 한국과 미국간의 교통수단은 船便으로서 약 40일¹²⁾을 요하

5) 前 서울대총장 윤일선박사 모친.

6) ① 황성신문 1906. 8. 2 [尹氏歸國]

② 大韓每日申報 1906. 8. 25 [夫人在院]

7) 윤남경, “할머니를 말한다,” 여성동아 1969. 9, p. 177.

8) 황성신문 1907. 1. 30 [李夫人禮式]

9) 황성신문 1908. 3. 24 [婚禮盛況]

10) 신문의 인쇄상태 不分明.

11)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國大出版部, 1984. p. 234.

12) 제국신문 1900. 3. 7.

였다. 이것으로 판단하건대 윤고려 일행의 귀국은 미국을 출발한 다음 해인 1906년 2월 중순경으로 생각된다.

윤고려가 사망한 19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칠팔년”전은 1905년과 1906년이 되며 윤고려 일행이 미국에서 귀국한 시기가 전술한 바와 같이 1906년임을 생각할 때 그녀가 양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1906년 이후 1913년까지의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성장과정이나 가족사항, 남아 있는 사진(사진 2)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진 2〉 尹高麗, 매일신보 1913. 12. 3.

그녀가 양장을 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윤고려가 최초의 양장여성이 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그것은 1906년 이전에 양복을 착용한 여성이 꽤 여러명 있었던 기록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신보 1899년 1월 14일자에는

“북송현 류리창훈 집안에 었더한 녀인이 양국 의복을 입고 외국 각식 물화와 대한 각식 물화를 무역하여 늦코 파는디…… 전 연천군수 조중하씨의 첩이 되엿더니…… 십년을 작정하고 내 아모리 녀인이라도 가로에 안져 장수를 하여 빛을 감갓다 하고…… 대한국 의복을 십년 후에 다시 넘겡소 하고…… 눈물을 흘니

며 양복을 하고 물건파는 전방으로 나아가며 하는 말이…….”

라고 하여 연천군수였던 조중하의 소실이 가정형편상 양복을 입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해인 1899년에는 매일신문(2. 15), 제국신문(5. 19), 독립신문(5. 31) 등에 각기 경옥당이라는 여인의 양복 착용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대한 녀인이 양복 하고 안동서 장수하던 경옥당이 평동 한창호 집으로 이사를 가서…….”¹³⁾

“경옥당아란 녀인이 양복을 하고 평동 한창호 집을 미삭 수십원씩 세전을 주고 들어서 장수한다는 말은…… 근일 들은즉 그 경옥당이 세전도 니지안코 도로여 그 주인 고상기씨의 돈룩릭여원을 지고 어티로 간곳이업다더라.”¹⁴⁾

“…우리나라에 경옥당이라 하는 녀인은…… 외국 복식을 임의로 입고 외국 사름를 속이다가 지금 도망질하고로…… 일본 풍속에는 본국 사름이 연고업시 다른 나라 의복을 입으면 죽는법이라 하더라. 외국서는 계집아히도 다 더러 하는디 대한 녀인은 아모 교도안코 학문도 업시 제국의로 외국 복식을 입어도 정부에서 물으논가 하고 버린 물건으로몬 아니 과연 억울한 일이라고들 하더라.”¹⁵⁾

고 하여 양복 착용한 경옥당의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비난하고 있다. 연천군수였던 조중하의 소실이나 경옥당에 관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이들 두 여성은 중하류 계층에 속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용기있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담하고 개성적인 성격의 여성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당시 이들의 양장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이들 두

13) 매일신문 1899. 2. 15 [韓女爲業]

14) 제국신문 1899. 5. 19 [부지거쳐]

15) 독립신문 1899. 5. 31.

여성이 양장을 한 것은 명확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여성 중에서 누가 먼저 양복을 착용하였는지 확정짓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조중하의 소실(미일신문 1899. 1. 4)에 관한 양장기사가 경옥당(미일신문 1899. 2. 15)의 것에 비해 1개월 정도 빠르게 게재되고 있으나 당시의 신문의 사정으로 보아 이 정도의 차이로 조중하의 소실이 최우선적으로 양장을 한 여성으로 단정짓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똑같은 내용의 경옥당에 관한 기사가 독립신문에는 이보다 훨씬 후인 5월 31일에야 게재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기록상 먼저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천군수 조중하의 소실이 될 것이다.

한편 제국신문 1900년 3월 7일자에는

“ 리범진씨가 미국공수로 갈 썩에 그 자데와 소실을 달이고 갔더니 슈년만에 쇼실만 룬선을 타고 스십여일 만에 인천을 나와서 삼일전에 입성하였는디 외국 기명훈 풍도에 저저다가 본국으로 돌아온즉 거쳐범 이 결정치 못할것이 불합해야 방장 집을 슈리훈다하고 입은 의복은 양복이라더라.”

고 하여 1896년 7월에 도미하였던¹⁶⁾ 리범진의 소실이 1900년 3월 귀국한 이후 양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박에스터나 하란사 등이 1900년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¹⁷⁾ 이래 양복 착용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윤고려에 앞서 양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윤고려가 귀국한 1906년 경에는 거리에서 양장 여성을 비교적 여러 명 볼 수 있었음이 신문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¹⁸⁾

한편 상당히 일찍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엄비의 양장 사진이 年代未詳으로 전해지고

있다(사진 3).



〈사진 3〉 엄비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㉔ 생활과 풍속, p. 117.

엄비의 양복 착용년대를 1895년으로 보는 견해¹⁹⁾도 있으나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1895년 당시 엄비가 양장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독립신문 1896. 7. 18.

17) 李效再, “開化期女性의 社會進出,” 韓國女性史Ⅱ, 梨大出版部, 1984, pp. 54, 56.

18) ① 제국신문 1906. 5. 31, 7. 31, 7. 23.

② 제국신문 1907. 6. 19, 10. 17.

③ 대한매일신보, 1906. 6. 21.

④ 만세보 1906. 8. 3.

19) 朴京子, “日帝時代의 服飾,”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p. 434.

8세에 입궁한 후 한동안 궁에서 나와 살던 엄비가 재입궁하여 고종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시작한 때는 민비가 시해된지 5일 밖에 안된²⁰⁾ 1895년 10월 중순이었다. 따라서 1895년에 엄비가 양복을 착용했다면 그것은 엄비가 재입궁한 10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10월 이후 아관파천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때였다. 또한 외국인과 자주 접함으로써 복장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외교관의 복장의 서양화가 1899년에야 이루어지는 등 고종이나 남자 대신들도 아직 양복 착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단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妃²¹⁾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법도가 지엄한 궁중에서 공인으로서의 엄비가 최첨단의 양장을 하고 사진촬영을 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엄비의 양장이 아관파천시기인 1896년 2월 이후 1897년 2월간에 있었던 것으로 가정해 보고자 한다.

영친왕의 출생이 1897년 10월²²⁾이므로 러시아공사관에서 환궁했던 1897년의 중반 이후의 시기는 임신으로 인한 엄비의 복부 팽창과 산후 조리기간에 해당되므로 양장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이다. 또한 1900년에 촬영된 엄비의 사진(사진 4)을 비교하였을 때, 비록 肉眼이긴 하지만 양장했을 때의 모습이 보다 젊어보이므로 양장 사진의 촬영시기는 1900년 이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엄비가 영친왕을 출산한 1897년 10월 이후 1900년까지의 기간은 前述한 바와 같이 지엄한 궁중 법도하에서 엄비가 양복을 착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엄비는 아관파천시기인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간 러시아공사관에 거주하면서 양복을 착용했을 것이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엄비의 양장은 러시아의 외교관 가족 중 여성의 복장과 상호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보다 확실히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러시아공사 웨베르의 부인과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의 洋食 시중²³⁾을 들었고 따라서 엄비와도 친밀해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孫澤의 복장에 관해 고찰, 비교하는 것이다. 러시아공사 웨베르(1885년 부임)의 처형으로 궁에 자주 출입하였던 손택²⁴⁾과 웨베르공사의 부인의 복장에 관한 고찰은 엄비의 양장에 대한년대규명에 일조가 될 것이다. 한편, 당시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일본을 경유해서 유입된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엄비의 양장이 러시아나 일본 중 어느 쪽을 경유하여 유입된 것인지에 관한 규명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된다.



〈사진 4〉 엄비(1900), 百年前の韓國, p. 10.

20) 黃玪(李章熙 譯), 「梅泉野錄」, 大洋書籍, 1978, p. 191.

21) 1903년 12월 淳嬪嚴氏에서 皇貴妃로 冊封됨. 吳蘇白外, 「韓國100年史 1880~1983」, 韓國弘報研究所, 1983, p. 102.

22) 本田節子(徐石演 譯), 「비련의 황태자비 李方子」, 汎友社, 1989, pp. 59, 61, 75.

23) 李圭泰, 「버선발에 양구두」, 新太陽社, 1989, p. 198.

24) ① 李效再, 前掲書, p. 56.

② 李圭泰, 前掲書, p. 198.

이 밖에 1898년 당시 여학교 찬양회 사무원이었던 고정길당²⁵⁾도 어려서부터 20여년 아라사와 청국에서 생활하였던²⁶⁾ 것으로 보아 일찍이 양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다. 그런데 그녀의 복장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윤고려가 양복을 착용하고 활동하던 시기는 1906년 이후로서 그 이전에 양장한 여성이 다수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여성 양장의 효시가 윤고려라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여성양장의 우선 순위는 1890년의 이숙경과 1896년 2월에서 1897년 2월 간으로 추정되는 엄비가 있지만 이들 두 여성의 양장은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신문기사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연천군수 조중하의 소실(독립신문 1899. 1. 14)과 경옥당(독립신문 1899. 2. 15)은 이숙경과 엄비에 대한 사항이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가 될 것이다.

Ⅲ. 結 論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한국여성 양장은 1890년대에 시작되었다. 1890년의 이숙경이나 1896년 2월~1897년 2월간의 엄비의 양장은 상당히 빠른 것이나 고증을 필요로 한다.

이후 기록상 나타난 양장여성은 연천군수 조중하의 소실(독립신문 1899. 1. 14)과 경옥당(독립신문 1899. 2. 14)인데 신문기사의 내용으로 보건대 이들은 당시 중하류 계층의 여성들로서 생활을 위해 과감히 관습에 도전하여 양복을 착용한 개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1900년의 리범진의 소실도 미국유학 후 귀국한 박에스터, 하란사 등에 앞서 양장을 한 여성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양장의 효시로 발표된 윤고려는 이들보다 훨씬 뒤인 1906년 이후 양장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前述한 두 여성 즉 고증이 필요한 이숙경과 엄비의 양장을 제하면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는 연천군수 조중하의 소실과 경옥당이 될 것이다. 신문에 게재된 시기는 조중하의 소실이 경옥당에 비해 1個月 앞서 있으나 이 경우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신문 보도상 1개월의 차이만으로 그 착용시기의 명확한 구분은 곤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중하의 소실과 경옥당 두 여성을 모두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여성 양장의 효시에 관해 이미 발표된 내용에 대한 이의의 제기와 함께 새로운 안을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보다 풍부한 자료와 연구에 의해 시기가 앞당겨짐과 함께 착용자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 權桂淳, “衣裳의 古今”, 新生活 100年, 新丘文化社, 1971.
- 김진식, 「한국 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國大出版部, 1984.
- 金源模, 「百年前의 韓國」, 카톨릭출판사, 1986.
- 南潤淑, “韓國現代女性服飾制度의 變遷過程研究”, 世宗大大學院, 1989. 12.
- 林鍾國, “安國洞 8番地”, 女苑 1967. 10.
- 朴京子, “일제시대의 복식”, 韓國의 服飾, 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 吳蘇白外, 「韓國100年史 1880~1983」, 韓國弘報研究所, 1983.
- 李效再, “開化期女性의 社會進出”, 韓國女性史 II, 梨大出版部, 1984.
-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梨大出版部, 1977.
- 俞水敬, “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研究”, 梨大大學院, 1989. 4.
- 李圭泰, 「버선발에 양구두」, 新太陽社, 1989.

25) 1895년경 러시아에서 내한. 세계정세, 근대지식에 밝았음. 여학교를 그만둔 후 무교동에 양요리점 개설, 尹惠源, “開化期女性教育,” 淑大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87, p. 149.

26) 독립신문 1898. 9. 29. [너중호걸]

尹惠源, “開化期女性教育,” 淑大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87.

黃珪(李章熙 譯), 「梅泉野錄」, 大洋書籍, 1978.

F.H. 해링톤(李光麟 譯), 「開化期の韓美關係」, 一潮閣, 1989.

本田節子(서석연 역), 「비련의 황태자비 李方子」, 범우사, 1989.

中寸良子, “女子服裝の近代化についての研究,” 福島女子短期大學研究紀要 第14集, 1985.

여성동아

여 원

대한매일신보

독립신문

만세보

미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